

〈빌립보서 강해〉

삶과 죽음을 초월한 복음 우선의 삶

본문: 빌 1:12-26

2024년 1월 17일

1. 개요

1:1-2

서론

1:3-11

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기도

1:12-26

삶과 죽음을 초월한 복음 우선의 삶

- 본론의 첫 부분. 주요 주제가 드러남.
- 27절 “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”라는 서신 전체의 주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. “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?”

2. 본문 주해

• 현재 복음의 진보(12~18절)

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

- ‘내가 당한 일’ → 복음으로 인해 매임.
- ‘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’ →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위축될 것을 우려. 그러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(진보)되었다!
- 복음 전파의 통로. 창 50장. “나의 역경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다!”

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

- 어떻게 진전되었는가? → “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!”
- 바울의 투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끼친 영향
- ‘모든 시위대 안’ → 바울을 투옥하고 있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.
- ‘그 밖의 모든 사람’ → 복음이 로마 최정예 부대의 방어막을 뚫고 나타남.

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

- 바울의 투옥이 믿는 자들에게 끼친 영향
- ‘주 안에서 신뢰함으로’ →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한 바울로 인해 더욱 크게 주님을 신뢰한 것.

- “나의 모습이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?”

<A-B-B'-A'의 교차구조>

15절	[A]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,	[B]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
16절		[B']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
17절	[A']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	

- A와 A' →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.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분별해 내기를 바라는 것.
- ‘투기와 분쟁으로’ →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가장 악한 일로 지목하는 대상.
- B와 B' → ‘착한 뜻으로’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.
- 바울 → ‘복음을 변증’ 법정적 표현. 바울은 복음을 의인화하여 재판정에서 피고의 자리에 앉히고, 자신을 변호사의 자리에 서는 구도를 그림.
‘세우심을 받은’ = 신적 수동태. 하나님께서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바울을 세우신 것. 바울의 투옥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것.
- “나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무엇을 각오하였는가?”

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

- ‘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’ →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악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, 이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.
- “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?”
→ 동기가 어떻든 복음이 전파되어, 복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!

• 미래 복음의 진보(19~26절)

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

- ‘구원’ = ‘소테리아’ 1) 영혼 구원 2) 일상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
- 바울의 구원은 무엇인가?
i)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(개역개정).
ii) 감옥에서 석방되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될 것(새번역).
“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

다.”

-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
 - (1) 바울은 일관되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함.
 - (2) 바울의 옍기 13장 16절의 인용.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옍의 고백을 바울은 옍두에 두고 있는 것.
 - (3) 가까운 문맥인 2장 12절에서의 용례 또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.
- 종말론적 구원을 위한 기도. “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?”

20절	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
21절	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

- ‘간절한 기대와 소망’ → 그리스도
- ‘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’ → 지중해 지역 문화의 명예와 수치 강조.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육체적 고통보다 “부끄러움”(히 12:1)이 훨씬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음.
- 초대 교회 복음 전파자의 최우선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져올 수 있는 수치를 견디는 것.
- 바울의 투옥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었음. 또한 바울의 질병 또한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었음.
- ‘내게 사는 것’ = 갈 2:20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. →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조차 문제가 되지 않는다!
- ‘유익함’ = ‘케르도스’ 상업적 용어. 바울 개인에게 더 이득.
 - “바울에게는 죽는 것이 남는 장사다!”
- “바울 앞에 죽음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다!”
- “나는 죽음조차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?”

22절	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
23절	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
24절	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

- ‘그러나’ → 대조. = 유익(죽는 것) ↔ 열매(육신으로 사는 것)
- 바울의 갈등
 - 하고 싶은 것(23절, 죽는 것) vs. 해야 하는 것(24절,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일)
- ‘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’ 죽음과 삶. 그리스도의 곁으로 or 빌립보 교회의 곁으로

- ‘떠나서’ = 묶인 상태에서 푸는 동작. 텐트를 쳤다가 끈을 풀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행위.
정박하는 배의 닻줄을 풀고 출항할 준비를 하는 행위.
-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? 고귀한 죽음 vs. 교회를 위한 생존
-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가? → “삶과 죽음을 초월한 복음 우선의 삶”
- “살든 죽든 복음이 우선되는 것을 선택하겠다!”

25절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

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

- 바울이 사는 것의 유익 → 코이노니아.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
→ ‘믿음의 진보’와 ‘기쁨’이 됨.
- ‘믿음의 진보’ → 12절의 ‘복음의 진보’와 인클루지오(처음과 끝에 비슷한 개념이나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기법).
- “매여 고난받는 것이나, 자유롭게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나 모두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며,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!”
- ‘자랑’ = ‘카우케시스’ →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함.
“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”(고전 1:29)
- 26절 → 그리스도 안에서,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바울을 통해 풍성해지게 되는 것.
원리: “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”(고전 1:31)
- “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것인가?”

■ 요약 및 적용

1. 삶과 죽음을 초월한 복음 우선의 삶

-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.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.

적용: 복음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삶을 살자!

2. 내 삶이 교회의 유익

- 바울의 매임과 삶이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가능케 하였다.

적용: 나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고, 교회가 세워지게 하자!